

2017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02호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6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II.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입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4억 1,778만원으로, 전년도 169억 3,904만원 대비 4억 7,874백만원(2.83%)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7억 9,719만원, 보조금은 144억 22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1,839만원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최종예산	2016년 대비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17,418	16,939	479	2.83
세외수입	2,797	2,856	△60	△2.1
경상적세외수입	270	544	△274	△50.37
임시적세외수입	2,527	2,313	214	9.25
보조금	14,402	13,860	542	3.9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8	223	△4	△1.79

○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폴리텍 서울 강서대학 사용료,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사용료,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사용료, GSEF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등재산임대수입 2억 7천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수입 14억 2천 8백만원,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9천 9백만원으로 총 25억 2천 7백만원임.
- 보조금 수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38억 3천 8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억 6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이 2억 1천 8백만원임.

나. 세 출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5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9억 3천 3백만원 대비 41%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070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억 2천 5백만원 (41.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2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 증액되었고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액되었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 산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일반 회계	소 계	208,557	147,933	60,624	41.0
	행정운영경비	248	252	△4	△1.6
	재무활동	1,256	1,153	103	8.9
	사업비	207,053	146,528	60,525	41.3

- 세출예산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대 427억 4천만원 증액,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180억 6천 3백만원 편성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606억 2천 4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 분야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 … 1,467억 3천 9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77억 1천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45억 1천 8백만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679억원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1억 6천만원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2억 7천만원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2억 5천만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2억 4천 4백만원 등임.

【 노동존중문화 정착 】 … 294억 2천 8백만원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11억 2천만원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2억 5천 4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억 6천 8백만원
-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억 6천 3백만원 등임.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 308억 8천 6백만원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9억 3천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3억 5천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2억 2천 5백만원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6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83억 9천만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8억 7천 7백만원 등임.

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사회투자기금	10,395	10,993	16,210	△5,216	5,179

○ 사회투자기금의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1억 7천 9백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103억 9천 5백만원 대비 50.18%(52억 1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4억 1,778만원으로, 전년도 169억 3,904만원 대비 4억 7,874백만원(2.8%)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7억 9,719만원, 보조금은 144억 22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1,839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천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2억 7천 4백만원 감소(50.37%)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의 임대면적 축소에 따른 임대수입의 감소와 2016년 일자리노동국 소관 창업지원과의 수입이 2017년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로 이관된 데에 따른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5%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도비 반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17 예산안	2016 최종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17,418	16,939	479	2.83
일 반 회 계	세외수입	2,797	2,856	△60	△2.1
	경상적세외수입	270	544	△274	△50.37
	재산임대수입	270	544	△274	△50.37
	임시적세외수입	2,527	2,313	214	9.25
	기타수입	2,527	2,313	214	9.25
	보조금	14,402	13,860	542	3.91
	국고보조금등	14,402	13,860	542	3.91
	국고보조금등	14,402	13,860	542	3.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	223	△4	△1.79
	보전수입등	218	223	△4	△1.79
	전년도이월금	218	223	△4	△1.79

- 보조금 수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20억,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천 3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17억 9천 5백

만원 등 국고보조금 38억 3천 8백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억 6천 4백만원 등 총 144억 22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250만원 증가하였음.

나. 세출

- 서울시의 2017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체 29조 6,525억으로 전년도 예산 27조 5,038억원에 비해 7.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20조 6,227억원, 특별회계는 9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6%, 8.3%가 증액되었음.

<2017년도 서울시 총 예산안 현황>

구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계	29조 6,525억원	27조 5,038억원	2조 1,487억원(7.8%)
일반회계	20조 6,227억원	19조 1,694억원	1조 4,533억원(7.6%)
특별회계	9조 297억원	8조 3,343억원	6,953억원(8.3%)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5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1억 9천 9백만원(추경 포함)에 비해 29.9% 증액되었음.

※ 전년도 본 예산 1,479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41% 증가하였음.

- 이 중 사업비는 2,070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억 2천 5백만원(41.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2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 증액되었고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액되었음.

<2017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안)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147,933	149,626	146,199	208,557	60,624	40.98	62,358	29.90
사업비	146,528	148,253	144,826	207,053	60,525	41.31	62,227	30.05
재무활동	1,153	1,153	1,153	1,256	103	8.93	103	8.24
행정운영경비	252	220	220	248	△4	△1.59	28	11.32

- 세출예산의 증가분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대에 427억 4천만원 증액,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180억 6천

3백만원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606억 2천 4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2. 신규사업 현황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2,085억 5천 7백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198억 9천 3백만원이 편성(주민참여사업 10개, 13억 2천만원)되었으며, 이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예산의 9.5%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17년도 예산(안)
일자리정책담당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160,000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 (주민참여)	200,000
	청년구직자 중견중소기업 취업지원 (주민참여)	225,000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80,000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주민참여)	485,000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지원 (주민참여)	50,000
	마을 내 안심 일자리 구축 (주민참여)	70,000
	송파인재클럽 운영 및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주민참여)	70,000
	서울형 좋은 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협치)	270,000
노동정책담당관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80,000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63,000
사회적경제담당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 센터(양천구, 주민참여)	80,000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창업동아리 현장교육 (은평구, 주민참여)	30,000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강서구, 주민참여)	30,000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별설명서 p.38>

- 서울시(이하 “시”)는 지역 내 파트너십을 활용한 고용·인적자원의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4천 9백만원 증가한 33억원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x1,272,000) 1,751,000	(x2,000,000) 3,300,000	(x728,000) 1,54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사업(특화사업) 355,000천원(X284,000) ■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139,000천원(X83,000) ■ 서울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65,000천원(X39,000) ■ 지역특화프로젝트 추진 2,741,000천원(X1,594,000)

- 본 사업들은 고용노동부의 공고에 따라 시가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정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예산서상의 국비 지원액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가 받게 될 국비 예상금액임.
- 이 중 지역특화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시는 3년간 최대 50억원의 정부 지원을 고려, 약 16억원의 국비 지원을 가상하여 6:4의 매칭 비율로 총 27억 4천 1백만원(국비 15억 9천 4백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음.
- ※ 지역특화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에서 6:4 매칭조건으로 최장 3년, 최대 50억 원 한도로 지원함.
- 고용노동부는 사업수행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선정 하여 동 사무국과 함께 2017년도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현재 산업거점 일자리 기반 조성, 대학창업지원, 고용위기사업 지원사업을 계획 중임.
- 동 사업은 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나 공모에 응모하여 국고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특화사업인 만큼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요자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p.47>

-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일자리의 발목을 통해 참여 시민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을 배양시켜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2013년 시작되었음.
-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는 전년대비 427억원이 증가(169.9% 증가)한 6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뉴딜일자리	25,160,000	67,900,000	42,7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386,400 ■ 사무관리비 3,900,000 ■ 민간경상보사업보조 6,795,200 ■ 자치단체경상보조 11,818,400

- 본 예산의 증가분은 안정적 근로 및 취업준비 시간 확보 등 근로여건 조성
을 위해 2017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생활임금('17년도 생
활임금 시급 기준 8200원)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추진 인
건비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함.
-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6년 현재 총 77개 사업, 2,302개의 일자리(시 직접
사업 57개 1,862명, 투자출연기관 사업 12개 260명, 민간공모 사업 8개
180명, '16.11.28 기준)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근로 여건은 시간
당 6,200~6,800원의 임금으로 일 6~8시간, 평균 9개월간 근무하였음.

<최근 3년간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획 인원	신청 인원	선발 인원	사업비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성과분석 (참여자만족도)
2014년	27개 사업	2,047	4,875	2,123	19,995	16,404	57.8%
2015년	45개 사업	1,652	3,358	1,730	20,350	15,397	59.0%
2016년	77개 사업	2,302	3,941	2,052	25,160	16,675	67.1%

- 생활임금 적용 외에도 서울시(이하 “시”)는 2017년 280여개의 사업 및
5,400여명 규모의 뉴딜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보다 4배
정도 증가된 규모로 다양한 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을 준비중에 있음.
-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2016년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사업참여 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참여자는 65.3%로 직업이 없었던 참여자(34.7%)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력형성인턴형 사업이 높은 취업률을 보였음.
- 또한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취업실태(2015)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업률은
42.2%로, 공공일자리로의 재진입을 제외한 총 취·창업인원 중 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은 434명, 25.5%로 나타났음.
- 본 사업의 당초 목표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의 직업
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직업을 가진 참여자가 더 많았다는 점과 관련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이 2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임.

- 한편 최근 3년간 폐지된 뉴딜일자리 사업은 평균 11개 사업으로, 15년도의 폐지사업을 살펴보면 목표달성사업은 단 2건 뿐이고 자체종료 2건, 사업심사로 탈락된 사업이 6건임.

<2015년 뉴딜일자리 폐지사업 현황>

	사업명	담당부서	폐지사유
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원	안전총괄과	사업심사 탈락 (사업효과미흡, 민간일자리연계곤란)
2	실내환경관리사	기후변화대응과	사업심사 탈락 (단순조사보조업무로 민간일자리연계곤란)
3	청소년 커리어 코치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자체종료
4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운영	주거환경개선과	부서 자체종료
5	도시텃밭 관리인력 지원	도시농업과	사업심사 탈락 (사업효과미흡, 민간일자리연계곤란)
6	성수동 수제화 패션거리 문화예술 프로젝트	경제정책과	사업목적 달성
7	38세금 체납징수관리	38세금징수과	사업심사 탈락 (개인체납정보 누출우려)
8	시민문화 연극교실 강사	문화예술과	사업목적 달성
9	동대문상권 신택리지 활동가 운영	문화융합경제과	사업목적 달성
10	놀이터 활동가 운영	공원녹지정책과	사업목적 달성
11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경제과	사업심사 탈락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와 중복)
12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관광정책과	사업심사 탈락 (직접일자리가 아닌 교육형사업으로 탈락)

- 일부 뉴딜일자리의 경우, 사업 참여 이후에 민간일자리의 연계가 어렵고 폐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170%에 가까운 예산의 증액은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보임.
- 급격한 증액을 통한 사업의 확장보다는 참여자들의 사후조사 및 사업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민간일자리 연계 방안 마련 등 현재 사업참여자들의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확대 <사업별설명서 p.95>

- 본 사업은 시가 청년층 밀집시설 내에 청년 대상 취업종합지원서비스 공간

인 '서울시 일자리카페'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12억 5천만원(전년대비 195.8% 증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422,520	1,250,000	827,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875,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375,000

- 시는 현재 18개의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41개의 일자리카페(시 조성 15개소, 대학 14개소, 자치구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임.

< 서울시 일자리카페 조성 현황 >

(2016. 11월 현재)

연번	자치구	카페명	운영개시일	운영기관	위치	규모
1	마포구	미디어카페 후	'16.5.30	서울시청	양화로175	426㎡
2	종로구	상명대학교	'16.6.9	서울시청	홍지문2길20	132㎡
3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16.8.1	서울시청	아차산로30길 36	138㎡
4	금천구	G밸리 무중력지대	'16.6.17	서울시청	가산디지털1로 168	291㎡
5	종로구	더 빅스터디	'16.8.1	서울시청	삼일대로15길 6, 3층	164㎡
6	종로구	파고다 종로타워	'16.9.1	서울시청	계천로93,1층	209㎡
7	강동구	카페헨섬	'16.11.	강동구청	동남로71길 20-9	132㎡
8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6.11.	강북구청	오현로 145	5,574㎡
9	강서구	영풍문고 김포공항점	'16.11.	강서구청	하늘길 38	1,606㎡
10	도봉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16.11.	도봉구청	덕릉로 315	3,215㎡
11	도봉구	행복한이야기	'16.11.	도봉구청	창동 20,창동 역사1층	223㎡
12	동작구	사랑발청년센터	'16.11.	동작구청	만양로8길 45	203㎡
13	서대문구	꿈꾸는반지하	'16.10.27	서대문구청	연세로5나길 10	115㎡
14	성동구	수제화갤러리카페수다	'16.10.28	성동구청	상원6나길22-11	96㎡
15	성북구	카페머그	'16.10.27	성북구청	동소문로20가길 34	104㎡
16	양천구	카페쥬라기	'16.11.	양천구청	목동동로12길 23	133㎡
17	양천구	피치스터디카페	'16.11.	양천구청	목동서로 250	180㎡
18	은평구	서울시혁신센터	'16.11.	은평구청	통일로 684	240㎡

- 시는 2020년까지 300개의 일자리카페 조성을 목표로 민간·공공·대학·청년공간에 일자리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 상담사 연결 전화, 스터디룸을 갖춘 일자리카페를 설치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스터디룸 대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들이 자주 가는 카페 공간을 통

해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기존 카페공간에 키오스크 설치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터디룸을 운영하는데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카페를 인지하고 방문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임.
- 또한 전년예산 대비 195.8%인 8억 3천여만원이나 증가한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통해 일자리카페의 개수만을 늘리는 상황(‘17년도 50개 신규목표)이 아닌지 우려됨.
-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대표로 일자리카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간확보 및 일자리카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본 사업이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카페의 증가 사업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1〉

- 시는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및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서울 시내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임.
- 2017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12억 4,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억정도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시설개보수비의 감소와 국가 공동훈련센터 등록을 통한 일부 학과의 국비사업 운영으로 시가 지원하는 훈련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이며 각 기술교육원별 세부 예산도 정부의 국비 훈련지원사업의 선정 결과가 나오는 12월 이후 확정될 예정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3,064,900	21,244,015	△1,820,8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70,000 ■ 시책업무추진비 78,000 ■ 민간위탁금 15,981,152 ■ 민간대행사업비 5,085,06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현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위 탁 법 인	(학)경북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 위 탁 기 간	'16.3.1~'19.2.28	'15.3.1~'17.2.28	'16.3.1~'19.2.28	'16.3.1~'19.2.28
2 0 1 6 예 산	5,301,924천원	5,083,982천원	5,714,427천원	6,019,546천원

- 기술교육원은 일부 수탁기관이 기관의 자체사업과 기술교육원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고 있고, 중도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다수의 교육생에 의한 교육의 질 하락 등 여전히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술교육원은 통합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과 통폐합 및 신설, 성과지표 일원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저조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마. 노동복합시설 조성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p.183>

- 본 사업은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권익센터, 청년 무중력지대 등 청년·노동 시설로 구성된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80억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노동복합시설 조성	0	18,063,000	18,06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77,000 ■ 공공운영비 45,000 ■ 시설비 17,841,000

-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포함하여 노동권익센터가 함께 입주하게 될 본 시설은 전국 최초의 노동복합시설로 서울이 노동존중특별시로서 노동의 가치를 알리고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시설의 예정지 주변에 평화시장, 세운상가, 창신동 봉제박물관 등이 있어 해당 자원들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청계천 역사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좋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동복합시설 공간활용(안)>

구 분	용 도
1층(419.04㎡)	주차장 ※ 1층 하나은행 365코너 존치 여부 협의 필요
2층(426.84㎡)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박물관
3층(426.84㎡)	교육장, 시민편의공간
4층(426.84㎡)	도심권 청년무중력지대, 청년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등
5층~옥탑 (362.68㎡)	노동권익센터(노동법률상담소, 감정노동센터 등)

- 시설이 개소되면 입주하게 될 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종로구 율곡로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중으로 시설 입주 시 연간 임차료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노동정책 확대를 위한 공간의 추가 확보가 용이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

<세부예산편성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건물매입	16,500백만원
안전진단	30백만원
리모델링	2,325백만원(설계 125, 시공 2,200)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 20~30억원 공사비 제2종(보통) 효율(4.49%) 적용 - 2,200백만원 × 4.49% ≒ 100,000천원 • 감리비 : 20~30억원 공사비 제2종(보통) 효율(1.12%) 적용 - 2,200백만원 × 1.12% ≒ 25,000천원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규모 손기정기념관 전면개보수 m²당 공사비 1,032천원 참조 산출 - 1,032천원 × 2,062m² ≒ 2,200,000천원
수수료	177백만원(감정평가 13, 중개수수료 164)
감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100~500억 이하 수수료 효율(7,845천원+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적용 - 평가보수 : 7,845천원 + (65억 × 6 ÷ 10,000) ≒ 12백만원 - 부가세 : 12,345천원 × 10% = 1백만원
중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 16,500백만원 × 0.9% = 149백만원 - 부가세 : 153백만원 × 10% = 15백만원
제세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천원 × 9개월 = 45백만원

- 시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이 소유하고 두레시닝이 입주해 있는 종로구 관수동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대부분은 건물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165억원임.
- 해당 건물의 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함.
- ※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16.11.30.)
- 동 시설의 조성은 노동의 역사적 가치와 노동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 건물을 우선 매입하고 보자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건물이 위치한 청계천 일대가 최적의 사업 적격지인지 여부와 경제성측면(건물매입비용 165억원)에서 활용가능한 다른 시 소유 대체 재산 유무,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바.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별설명서 p.209>

-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와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전년대비 93.8% 증가한 9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480,000	930,000	4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00,000 ■ 행사운영비 16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0 ■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00

- 예산의 증가분은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을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1억 9천만원과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 2억 8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임.
- 시는 사회적 경제 행사를 통한 우수 사례의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은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사회적경제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사회 주택 등 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이미 시에 창업센터, 아스피린센터, 창업카페 등 다양한 창업지원센터 및 정책이 존재하며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바, 별도의 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사. 주민참여 예산사업

- 2017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추진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총 1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선정된 10개 사업 중 일부는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로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주민참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자치구	'16년 예산안	소관부서
	계		1,320,000	
1	마을 내 안심일자리 구축	은평구 등	70,000	일자리정책 담당관
2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	성동구, 도봉구 등	200,000	
3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동대문구, 도봉구 등	485,000	
4	청년 구직자 중견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동구, 구로구 등	225,000	
5	「송파인재클럽」 운영 및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송파구	70,000	
6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 등	80,000	
7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활동지원	중구	50,000	
8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양천구	80,000	사회적경제 담당관
9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강서구	30,000	
10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창업동아리 현장교육	은평구	30,000	

-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총 10개로 지난해 5개보다 사업수가 2배로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선정된 주민참여사업 중 자치구 일자리카페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과 상당부분 겹치는 사업이며, 안심일 자리구축,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도 시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임.

- 또한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의 경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던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의 중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 자치구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범위를 넘어 자치구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치구간의 형평성,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재정 부담 정도,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IV. 기금검토보고

1.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의 개요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사회투자기금	10,395	10,994	16,210	△5,216	5,179

-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각종 사회적금융에 대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운영중임.
- 사회투자기금의 2017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1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8%(52억 1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매년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어 지속적으로 기금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사회투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액은 51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도말 현재액 ^㉑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㉒ = ^㉓ + ^㉔
	수입 ^㉕	지출 ^㉖	증감 ^㉗	
10,395	10,994	16,210	△5,216	5,179

- 매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수익은 적자를 기록하여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초기의 10% 수준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213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함.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 억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도	'16년도	증 감	항 목	'17년도	'16년도	증 감
계	214	320	△106	계	214	320	△106
전 입 금	26	26	0	비용자성사업비	2	11	△9
보 조 금	0	0	0	용자성사업비	160	246	△86
용자금회수	83	101	△18	기 본 경 비	0	0	0
예치금회수	104	187	△83	예 치 금	52	63	△11
이 자 수 입	1	6	△5	예수금상환	0	0	0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계획은 213억 8천 9백만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용자금 회수 수입 82억 8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103억 9천 5백만원, 전입금 26억원, 이자수입 1억 6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의 지출액은 용자성사업비에 160억원(소셜하우징 사업 용자 8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에 80억원), 비용자성 사업비 2억 1천만원(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억 6천만원,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5천만원 등), 예치금 51억 7천 9백만원 등 213억 8천 9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되어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음.
- 시는 2013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전출하였으며, 민간기금 모금 실적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위해 모집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31억 2천만원이 전부임.
- ※ 모금액 31억 2천만원 중 30억원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기금 조성 초기 기부한 금액임.

<민간모금 상세내역>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모금액	민간모금 상세내역
< 합계 >		176.2	- 연도별 : 13년 133억, 14년 29억, 15년 9억, 16년 4.9억 - 재원별 : 중간지원협력 145억, 기부금 31.2억
'13	기부금	30.4	- 우리은행(30억), 시민기부(4천만원)
	중간지원협력	102.9	<7개 기관> - 아이쿱 30억, 에너지나눔과 평화 25억, 신나는 조합 5억, 행복중심생협 3억, (주)쏘카 24.9억, 북서울신협 10억, (주)해피브릿지 5억
'14	기부금	0.56	- 개인/기업/단체 (56백만원)
	중간지원협력	28	<6개 기관> - 루트임팩트 3.5억, (주)쏘카 15.1억, 동작신협 5억, 신나는 조합 2억, 논골신협 2억, (사)서대문사람숲 0.4억
'15	기부금	0.28	- 개인/기업/단체 (28백만원)
	중간지원협력	9.17	<5개 기관> - 신나는조합 2억, (주)크레비스 0.17억, (주)HG이니셔티브 3억, 동행 1억, 동작신협 3억
'16 상반기	중간지원협력	4.9	<2개 기관> - 신나는조합 1억, 한국사회혁신금융(주) 1억,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5억, (주)언더독스 0.2억, 노원교육복지재단 0.2억

- 당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단계에서는 서울시 출연금의 일방적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기부금 조성규모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을 매칭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의 기부금 조성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관련법상 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현재의 규모로 기금을 운용해 왔음.
- 아울러,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사회투자기금의 개편안으로 2017년부터는 시에서 직접으로 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다. 주요 사업별 검토

(1)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

- 본 사업은 역량이 풍부한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저이자(연 0~2%)로 용자하고 이들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채용자하는 방식으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 간 용 자 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 2,000,000 - 500,000천원 × 4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 8,000,000 - 1,600,000천원 × 4개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은 시의 기금과 일정비율의 매칭방식(시:민간 1:1~3:1)으로 자금을 자체 조달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4% 이하의 금리로 채용자하는 것임.
- 법 개정에 의한 기금 사무의 전면 민간위탁 금지로 사회적기업 용자, 사회적프로젝트 용자 등 기존에 수행하던 타 사업들을 본 사업에서 통합운영하기로 함.
-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 민간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시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이 시의 사회적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사업비를 용자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음.
- 또한 채용자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최근 3년간 용자실적을 살펴보면 '14년에는 6개 기관에 28억원, '15년은 5개 기관에 18억 5천만원, '16년에는 5개 기관 10억원으로 점차 용자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기금 직영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를 통한 기금 운용을 계획한 바 해당 사업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300% 증가한 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중간지원기관을 이용한 채용자의 경우 기존 (재)한국사회투자에 기금운용을 민간위탁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기관에 용자를 통한 채용자 사업구조로 운영되는 바 서울시에서 각 중간지원기관에 채용자 대상 선정에 대한 일정한

매뉴얼 교부가 필요하며, 용자기업 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 중간지원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2) 소셜하우징 사업 용자

-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및 기업 성장 도모를 위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임대주택공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고자 하는 것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간용자금	▶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용자 9,000,000 - 1,000,000천원 × 9개	▶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용자 8,000,000 - 1,000,000천원 × 8개

- 시는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과 마찬가지로 소셜하우징 사업 선정기관에게 연 0~2%(재용자는 4% 이내)의 금리로 용자하며 시와 민간이 1:1~3:1 비율의 매칭방식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8년임.
- 본 사업 또한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건설사회적기업에 재용자하는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굳이 중간지원기관 협력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적으로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 소셜하우징 사업은 아이부키(3건), 함께주택협동조합(2건), 일촌나눔하우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일상예술창작센터, 주택협동조합 하나의 등이 본 사업의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 서울시 주택정책과 사업과 연관이 있어 해당사업을 위한 특혜로 보여질 우려가 있음.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4년 40억 1천 2백만원(5개 사업), '15년 58억 8천 3백만원(6개 사업), '16년 63억 5천 7백만원(16개 사업, 9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주택시장의 성장, 주거복지 실현,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등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에 따른 제약과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사업으로 용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함.

(3)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 시는 기금운영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금위탁을 종료하고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

자, 소설하우징 용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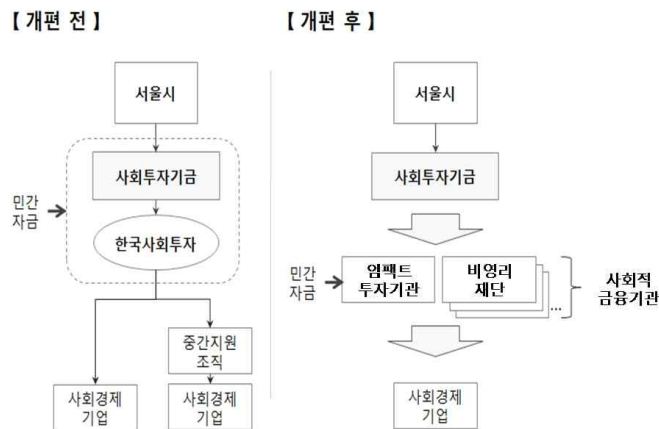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간경상 사업보조	-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 160,000 - 20,000천원 × 8개

- 본 사업은 사회적금융기관의 전문 경영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영향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사업과 소설하우징 용자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 용자금 외에 비용자성 지원인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선정된 일부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 될 논란이 있음.

(4) 사회투자기금의 개편

- 사회적기업 중 연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전체의 85%¹⁾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비해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제도 금융권에서 취급이 제한되는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해소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사회적기업에 1천만원에서 2억원 이내에서 최대 5년의 용자기간동안 연 2%의 금리로 자금용자 사업을 시행해왔음.

<사회투자기금 개편안>



1) 출처: 한국사회투자, 15년 사회적기업 자금수요 실태조사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시에서 기금을 직영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연간 2회에 걸쳐 직접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을 투·융자하고 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²⁾, 시와 민간의 매칭 방식을 통해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당초 적극적인 민간 기부금 모집을 이유로 민간위탁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부금 모집이 미미한 실정으로, 개편안에서는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사업을 통해 기금의 기금역할을 함으로써 기금의 가용자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시는 계획한 기금의 개편안으로 기금에 대한 민간 자금 확보를 통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황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등 구체적인 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법률 자문 및 행정자치부 질의회신('16. 10월) 결과 투·융자 운영 방식은 지방기금법이 금지하는 민간위탁 미해당